

#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 반발 “인력 재배치가 우선”

정부, 필수·공공 의료인 부족  
전체 의사 수 늘려서 해결 모색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입장차  
“일부 전공·지역 기피현상이 핵심”

정부가 최근 국가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의대 입학정원 500여명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시각차가 커 의대 정원 확대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30여년 간 묶였던 국내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500명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주목받는 필수·공공 의료인 부족 문제를 전체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려 풀자는 취지다.

의료 인력 확충안은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다. 필수·공공의료 분야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해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1989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이 중장기적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뉴시스

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와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적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3.4명이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확대될 경우, 의대 신규 개설보다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을 나눠 늘리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신설에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빠르면 현재 고2가 수능을 치르는 내년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의료계 수장들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원을 늘려도 비인기과 기피 현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 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우려도 내놨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예방의학이나 감염내과와 같이 공공성이 높은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위”라면서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이른바 ‘비인기 전공과목’을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는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격전지 대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공공의료 분야, 일부 진료과목 및 지역에 상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므로 의대 정원 총원이 감염병 대처의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의료계 반대는 거세지만,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당장은 기존 의대에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지더라도, 추후 의대 신설 방안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도는 최근 목포대, 목포시, 순천대, 순천시와 함께 전라남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박민서 목포대 총장과 고영진 순천대 총장은 “전라남도의 공공의료 등 의료복지 수준 향상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도도전장을 내민다는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 시장은 지난달 28일 경상북도와 ‘POST 코로나 대응 & 포항 뉴딜정책 간담회’에서 “정부의 의료보전 정책 변화와 함께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포항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치 당위성과 논리 개발에 주력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왼쪽)윤성이 총장, (오른쪽)황순일 불교대학장 /동국대

## 동국대 교원

### 제자사랑 릴레이 기부

동국대 교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자사랑 릴레이’ 기부를 이어가 대학가 귀감이 되고 있다.

1일 동국대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일동이 총장실을 찾아 코로나19극복장학 1000만원을 기부했다. 불교대학은 코로나19 극복 긴급 모금 캠페인에 단과대학 중 여섯 번째 주자로 참여했다.

/이현진 기자

## 성균관대

###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성균관대는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 연구원이 3일 ‘코로나19다음의 세상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Webinar)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접속번호 70636109로 WebEx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회, 역사, 법, 철학,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의 성균관대 교수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상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변동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분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 인덕대

### 통일 포스터 대상 수상

인덕대는 시각디자인과 2학년 이상훈 학생이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에서 총 406편의 출품작 중 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하고 라우드소싱인 주관한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은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의 홍보물 및 통일교육 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주제로 5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됐다.

이상훈 학생은 작품 ‘우리 손으로 희망을 껴다(사진)’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 카이스트, 차세대 리튬-공기배터리 소재 개발

강정구·최경민 교수 연구팀  
연구결과 재료분야 국제학술지 게재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10배

국내 연구진이 공기 중에 널리 퍼져 있는 산소로 충전되는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공기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소재를 개발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약 10배 큰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어 친환경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KAIST(총장 신성철)는 신소재공학과 강정구 교수가 숙명여대 화공생명 공학부 최경민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원자 수준에서 촉매를 제어하고 분자 단위에서 반응물의 움직임 제어가 가능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공기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KAIST 강정구 교수



숙명여대 최경민 교수



KAIST 최원호 박사과정

전극 소재(촉매)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는 KAIST 신소재공학과 최원호 박사과정이 제1 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결과는 재료분야 저명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5월6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번 소재개발을 위해 기

존 나노입자 기반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 수준의 촉매를 제어하는 기술과 금속 유기 구조체(MOFs, Metal-Organic Frameworks)를 형성해 촉매 전구체와 보호체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했다. 금속 유기 구조체는 1g만으로도 축구장 크기의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적

용 가능한 신소재다.

이와 함께 물 분자의 거동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물 분자를 하나씩 제어하는 기술도 함께 활용했다. 이 결과, 합성된 원자 수준의 전기화학 촉매는 금속 유기 구조체의 1nm(나노미터) 이하 기공(구멍) 내에서 안정화가 이뤄져서 뛰어난 성능으로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낮은 에너지 밀도의 한계로 인해 전기자동차와 같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요구하는 장치들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높은 에너지 밀도의 구현이 가능한 리튬-공기 배터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한용수 기자 hys@

## 장경자 인하대 교수, 여가부 장관 표창

지역사회복지 공헌 공로 인정

인하대는 장경자 식품영양학과 교수(사진)가 지역사회복지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가정의 달 기념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가족 가치 확산과 가족 관계증진 등 가족 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

장 교수는 생활과학대학 학장과 생활과학연구소장 재임 중 특성화 사업



으로 인하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했으며, 2008년 인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이후 2018년 12월까지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미추홀구가족센터장을 맡고 있다. 올해 미추홀구가족센터가 맡은 사업은 모두 23개로 수탁총액은 33억 8000만원에 이른다.

/이현진 기자

## 송실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서 긍정적 평가

송실대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교육부로부터 올해 12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와 수험생 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 운영, 대입전형 간소화 및 운영의 공정성 등을

평가해 선발한다.

1일 송실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된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부터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송실대는 올해까지 12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으로 선정됐다.

송실대는 올해 선정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45점 배점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제시된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위한 공정성 기반 구축 및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진 기자